

오성(五星)이 규성(奎星)에 모여들어서 宋나라의 여러 학자가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먼저 문명(文明)의 운(運)이 들어와서 고려의 태사(태사)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선생이 탄생하였다. 선생은 순수한 기품을 타고났으며, 도(道)가 밝혀지는 좋은 시기에 맞추어 나와서 이단(異端)을 배척하며 바른 도(道)를 옹호하여 크게 육경(六經)의 학문(學文)을 밝혀서 「해동공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선생의 이름은 충(冲), 字는 호연(浩然), 號는 성재(惺齋), 월포(月圃) 또는 방회재(放晦齋)라고도 한다.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대령군(大寧郡) 출신으로 판리부사(判吏部事)를 지냈고, 문행(文行)으로 유명하였던 최온(崔溫)의 아들이다. 송나라 희종(熙宗) 옹희(雍熙) 3년(고려 성종 5년, 병술 986년) 지금의 해주 향교(鄕校)터에서 출생하였다.

을사년(1005)에 갑과에 장원급제하여 현종(顯宗), 덕종(德宗), 정종(靖宗), 문종(文宗)의 4대의 왕조를 차례로 섬기면서 왕도(王道)를 진술하고 패술(霸術)을 배척하였다. 추부(樞府)에 있을 적에 설원(設苑)에 나타난 「六正六邪」의 내용과 漢나라에서 제정한 「六條」의 명령을 써붙이게 하였고, 시중(侍中)으로 있을 적에는 율령(律令)과 서산(書算)을 정비하였고, 태부(太傅)로 들어가서는 「경비를 절약하며 백성들의 부과를 경감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가 고시(考試)를 맡았을 때 뽑은 인재들은 모두 뒤에 상서(尙書)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시험을 상서방(尙書榜)이라고 불렀다.

문종 정미년(1067)에 선생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건강하였으므로 두 아들에게 부축을 받고 국로연(國老宴)에 참가하였다. 추충찬도좌리동덕홍문의유보정강제공신(推忠贊道佐理同德弘文懿儒保定康濟功臣)에 봉하고 태사 중서령(太師 中書令)의 작위를 주어 벼슬을 마치게 하였다. 여러 대 동안 유학자(儒學者)의 스승이었고 나라의 덕망 높은 원로였으므로 궤장을 주고 평장사(平章事) 김원정(金元鼎), 중추(中樞) 왕무승(王懋崇) 등을 보내고 또 의대(衣帶)와 안마(鞍馬)를 화려하게 갖추어 주었다.

선생은 인품이 문(文)과 무(武)를 겸비하여 들어와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군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골에 은퇴한 뒤에도 국방이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면 모두 선생에게 가서 자문 받았다. 현종 이후에는 전쟁이 종식되고 학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국도(國都) 자하동(紫霞洞)에 구재(九齋)를 지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도(道)가 크게 행하여 9經과 3史를 존송하였으며, 허영과 사치를 배격하고 실천에 힘쓰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유자(儒者)의 의복을 입고 유자(儒者)의 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최시중공도(崔侍中公徒)라 하였다.

평소에 자손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다행히 문학과 조행으로 출세하였으니 앞으로는 청백하며 근신하는 자세로 여생을 마치기로 맹세한다」 하였다. 宋나라 희종(熙宗) 1년 戊申(고려 문종 9년, 1068)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83세였다. 왕은 태의(太醫) 이염

(李鹽)을 보내어 조문하며 시호(諡號)를 논의하여 문헌(文憲)으로 정하고, 정종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아들이 둘인데 장남 유선(惟善)은 중서령, 시호(諡號)가 문화공(文和公)이요, 차남 유길(惟吉)은 상서령(尙書令)이다. 자손이 번창하여 한 집안에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수십 인에 달하였는데 모두 문학으로 출세하였다.

문화공(文和公)은 자(字)는 낙부(樂夫), 호(號)는 송탄(松灘)이다. 천품이 화평하고 순수하며 풍모가 맑고 깨끗하였다. 아버지에게서 공부하여 학문이 구재(九齋)에서 으뜸이었다. 현종 경오년(1030)에 친시(親試)에 뽑혀서 벼슬이 태사 상주국 문하시중(太師 上柱國 門下侍中)에 이르렀다. 임금을 왕도(王道)로 보좌할 역량을 가지고 오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도(儒道)를 존중하고 불교를 배격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았다. 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문헌공(文憲公)의 서원(書院)에 함께 제사를 받들었다.

아아, 문헌공과 문화공 두 선생은 세대를 계승하여 나라의 사표가 되었고 집안에서 전승하여 국정(國政)을 맡아서 덕행(德行)과 훈업(勳業)이 역사에 빛나고 있으니 후학(後學)으로서 감히 붓을 잡고 천양(闡揚)할 필요가 아니다. 우리나라(朝鮮)가 일어난 뒤에 여러 번 그 후손을 등용하여 채용하였고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이 두 선생의 화상(畫像)에 찬(贊)을 지었다.

선생의 사당이 처음에는 공자묘(孔子廟)의 서쪽에 있었는데, 가정(嘉靖) 경술년(조선 명종 5년, 1550)에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서쪽 교외(郊外)로 옮겨 세우고 구재(九齋)를 모방하여 설치하고 또 백록동규(白鹿洞規)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나라에 액호(額號)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선조 임금은 이를 특별히 허락하고 구경(九經)과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서적과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저서(著書)를 역편(驛便)으로 보내어 주고 또 소속 토지도 마련하였다.

융경(隆慶) 신미년(선조 5년, 1571)에 황해도 관찰사 박승임(朴承任)과 해주목사 한성원(韓性源)이 또 석동(席洞) 백운봉(白雲峰) 아래로 옮겨 세우고 울곡(栗谷) 이이(李珣, 문성공)가 은퇴할 때에 원장(院長)이 되어 학규(學規)를 제정하여 벽에 걸어놓았다. 현종 14년 계축(1673)에 관찰사 윤용(尹容)이 나라에 청하여 산에서 재목을 내어 수리하였고, 숙종 24년 을축(1685)에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이 두 선생의 화상(畫像)을 다시 모사하여 모셔놓았다. 뒤에도 관찰사들이 서로 계속하여 경비를 보조하여 수리해 내려왔다. 지금 임금(철종) 13년 임술(1862)에 선생의 후손인 종형(琮炯)과 재규가 건물이 퇴락한 것을 걱정하며 비석(碑石)을 세워서 사실을 기술해 둘 것을 모의하고 경비를 요청하며 비명(碑銘)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선생의 사당이 수백 년 후에 다시 신축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다. 내가 이미 이 사실을 기술한 이상 새삼스럽게 명(銘)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 지방의 관찰사로서 선생의 덕(德)을 사모하고 있으니 의리상 어찌 사양하리오? 과거 宣祖

때에 명나라 사절인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이 왔을 때에 「귀국에 공자(孔子)의 심학(心學)을 아는 학자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문순공) 선생과 포은(圃隱) 정몽주, 회헌(晦軒) 안유 등 여러분을 지적하여 대답한 일이 있다. 이것으로도 선생의 학문이 전통학파로서 올바른 전통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악(禮樂)과 문화가 송조(宋朝)에 못하지 않지만 유학의 연원(淵源)은 선생에게서 시작되었다. 옛 글에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道」가 되며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法이 된다.」 하였고 주역(周易)에는 「君子는 그것을 따라서 文化와 德을 높인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선생의 덕(德)이며 공적이다. 명(銘)을 다음과 같이 짓는다.

「옛적 은(殷)의 기자(箕子)는 아버지와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명이(明夷, 주역의 卦名)의 점괘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왔다. 신라(新羅)를 거쳐 고려(高麗)에 이르러 문헌 선생이 이 도(道)를 높였다. 평탄한 도학(道學)은 宋나라의 학자와 맞서며 오묘한 이치를 탐구함은 周代의 깊은 원리를 찾아내었다. 정통적인 도를 높이 받들며 순수한 길을 밟아서 모든 사람을 교육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술이 크게 천명되어 중국과 같은 수준에 달하였다.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제자를 양성한 것은 특별한 공적이었으며 이단을 배격하여 불교를 물리쳤다. 얼굴빛을 엄숙히 하여 조정에서 있을 때에는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선생에게 달려 있었다.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문화공(文和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하였다. 꽃과 달을 문장으로 시험할 때에 임금의 칭찬이 궁중에서 나왔다. 바른 말로 임금을 간한 정직한 충성은 고려(高麗)의 역사(歷史)에 기록되었다. 대대로 높이 받들었고 공적을 금석(金石)에 새겼다. 같은 건물에서 다른 신실(神室)에 모셨는데 남아있는 초상이 거룩하다. 옛 사람과 지금 사람에게 법이 되며 스승이 되셨구나. 두 선생께 제사를 올리니 모든 사람들은 우러러 보며 신(神)과도 통한 듯 하다. 임술년(1862) 봄에 서원(書院)이 새로 건축되었으니 많은 후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백운봉(白雲峰)을 바라보니 사당이 새로 당청되었다. 비석을 새로 세우니 우뚝한 그 모습, 삼가 명(銘)을 지어 영원한 세대에 보이노라.」

승정(崇禎) 기원 후 네 번째 癸亥年(조선 철종 2년, 1863) 10월에 정현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규장각직제학 (正憲大夫 禮曹判書 兼 知經筵 義禁府 春秋館事 弘文館提學 同知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奎章閣直提學) -월성(月成) 이유원(李裕元) 지음-

가선대부 행홍문관부제학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총관 규장각감교 직각 지제교(嘉善大夫 行弘文館副提學 兼 同知經筵 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摠府摠管 奎章閣檢校 直閣 智製教) -동래(東萊) 정건조(鄭健朝) 글씨를 쓰고 전액(篆額)까지 썼음-